

第49回
(定期會)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行政委員會會議錄

第 10 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12月28日(木) 午後4時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95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審査된案件

1. '95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行政委員會所管)(崔東煥委員 發議)..... 1面

(16時15分 開議)

○委員長 徐化錫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9회 정기회중 제10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行政委員會所管)(崔東煥委員 發議)

○委員長 徐化錫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5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발의한崔東煥幹事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崔東煥幹事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崔東煥崔東煥幹事입니다. '95년도 행정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동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尹弘老委員님.

○尹弘老委員 4페이지 하단 재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성북삼산동 3가 5-1, 5-3소재한 구유재산에 대한 과세 사항인데 '91년부터 '95년까지가 아니고 '91년 이전 부터입니다. 당초에는 구 세무과에 법인세 계가 있어서 법인세 계에서 과세 재산에 대한 부과를 하다가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동 담당자들이 부과를 하면서 본 과세 물건으로 누락

시킨 건으로 본 행정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바 이미 89년부터 과세가 누락됨으로 해서 실지 현재 과세 가능한 것은 5년분 밖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명기를 삭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 이전까지는 다 부과가 됐었다는 것이 반대 급부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으로 해서 부과 기간을 삭제하고 부과하여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았으니 시정 요망으로 이렇게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세액은 탈루돼서 시효경과로 인해서 부과하지 않는 세액을 차제하고 5년간 소급 부과했을 때 1,700여만원 이상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자료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본의회에서는 그 문제를 자료가 늦게 오는 관계로 해서 공개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감사 끝난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이 사실을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專門委員 宋鍊 고유목적의가 아니라 고유목적외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그렇죠. 고유목적 같으면 이게 부과가 안되죠. 그러나 89년부터 지금까지 탈루를 했다 그러나 부과는 5년밖에 안기 때문에 2년은 소급한다 하더라도 2년은 부과 안되는 거죠?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金壽榮委員 尹弘老委員 말씀하신 것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저도 동감인데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91

년부터 '95년까지라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면 어떨까요? 89년도 이후 계속 부과하지 않았으니 그러면 어떨까요?

○尹弘老委員 여기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專門委員 宋鍊 그것은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지워 버리면 거기에서,

○尹晚九委員 '91년부터 '95년까지만 지워 버리면,

(「그러면 되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朴時俊委員 尹弘老委員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91년도부터 '95년까지는 당연히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고 돈암 성결교회가 들어간 그 시점이 쉽게 얘기해서 5-1, 5-3소재에 건물이 신축이 돼서 준공된 날짜에서 부터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교회는 이 종교 용지를 지정하게 되면 이걸 뭐 당연히 돼야 될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89년 이것보다도 언제 이 건물이 신축이 됐는지 신축돼서 준공된 날로부터 그렇게 소급하는 것이,

○尹弘老委員 원칙은 그런데요.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는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89년도인가 88년도부터 부과가 누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5년을 소급하게 되면 '91년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은 시효결손으로 탈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專門委員 宋鍊 구청에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진해서 제출했으니까.

○朴時俊委員 종교 용지로 되어 있어요?

○尹弘老委員 그러니까 교회 건물 재산에 종교 목적으로 쓰는 용도가 있고 이외에 임대를 했거나 타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이 있다 이말이죠. 그것은 당연히 부과 대상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탈루됐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을 하게 됐는데,

○委員長 徐化錫 윤위원님 여기서 연도를 꼭 삽입하지 않고 그냥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았으니 즉시 시정요망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되죠」하는 이 있음)

그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고유목적의 그렸는데 고유목적외로 정정해야 되구요, 다른 것 또

○崔東煥委員 오자 그대로 이게 통과되면 3페이지에 오자가 체조장 강당이 아니고 강단으로 고쳐야 되구요.

○委員長 徐化錫 네?

○崔東煥委員 3페이지에 체조장 월곡배드민턴장 라이트 설치 비용에,

(「강당이 맞잖아요」하는 이 있음)

강당이 아니고 강단요. 체조장 강사가 서서 할 수 있는 강단.

○委員長 徐化錫 이것은 자구수정합니다. 4페이지는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것.

○尹晚九委員 5페이지를 봐 주세요. 서울신문구독 문제. 5페이지 서울신문 구독부수를 줄이는 대신 줄어든 부수만큼 지역신문을 늘리는 방법 강구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이 서울신문을 지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울신문을 지정해서 주면 되니까 현재 동사무소에 신문물을 보는 자체 통반장 그 자체는 서울신문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고 일간지 신문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宋夏星委員 일반신문으로 하자고 그랬지 당시.

○崔東煥委員 그렇게 고치면 좋겠는데요. 서울신문 구독문제를 통반장 일간지 구독문제를 이렇게 해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부수를 줄이는 대신 줄어든 부수만큼 지역신문을 늘리는 방법 강구

○金壽榮委員 서울신문 그러지 말고 일간신문 그러면 되잖아요? 포괄적으로 해서 서울신문이라는 말만 없애고 일간신문 그러면 되잖아요?

○尹晚九委員 일간신문 구독문제 이래가지고 일간신문 구독부수를 통반장 일간지 줄이는 대신 부수만큼 지역신문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申宗鉉委員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신문을 지금까지 구독함에 있어서 이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96년도에는 예산편성에 따

라서 우리가 심의할 적에 일간신문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감사의 지적 사항이거든요.

(「그래요」하는 이 있음)

(「와되도 되겠네요」하는 이 있음)

이것은 와되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냥 와되어야 합니다.

○金壽榮委員 왜냐하면 앞으로 하는 것은 서울신문을 본 또 무슨 다른 일간지 보건 그분들의 기호에 맞춰서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차후 것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온 사항 중에서 서울신문을 구독을 했으니까 서울신문을 줄인다는 얘기가 나온거죠. 그러니까 서울신문 여기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尹晚九委員 아니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울신문 구독부수를 줄였다해서 저희가 예산이 2억 3,000이 있는데 2억만 뛰 일간지 신문을 고루 보기 때문에 줄어든 부수만큼 지역신문을 할애하면 이것은 엄청 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그러니까 부수를 줄이는 대신이라는 말 속에는 더 확대 해석하면 몇 부를 빼고 전부 다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金壽榮委員 그러니까 확대해석도 하지 말고 축소해석도 하지 말고 글자그대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요.

○尹晚九委員 아니 문제가 있는 것은 대신 줄어든 부수만큼 지역신문을 활용하는 이제 문제라니까요. 지금, 서울신문 줄이자는 건 다 그때 얘기했지만 줄어든 부수만큼 지역신문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라.

○專門委員 宋鍊 그러면 줄어든 부수만큼만 지우면 되겠습니까.

○委員長 徐化錫 이러죠. 서울신문 구독부수를 줄이는 대신 줄어든 부수만큼을 지워버리고 지역신문을 늘리는 방법 강구, 그것 삭제해 버리면 되겠네요. 거기만.

(「그러면 되겠네요」하는 이 있음)

그렇죠? 서울신문 구독부수를 줄이는 대신, 줄어든 부수만큼을 삭제해 버리세요.

○尹弘老委員 대신이라는 말까지 빼고 줄이는 지역신문을,

○委員長 徐化錫 서울신문 구독부수를 줄이고 지역신문을 늘리는 방법 강구, 좋습니다.

○朴時俊委員 이것 한 번 다시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5페이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북5도 주민들의 호적발급 불편해소 방안 요망해서 이게 이북5도 주민은 호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북에서 여기를 나왔는데 내가 이북에 어디 살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기 서류가 있어 호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에 이북5도 주민의 호적을 확인해 주는 문서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관리,

○委員長 徐化錫 다시

○朴時俊委員 이북5도 주민의 문서를 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관리하거나 전산화 방안을 강구하여 불편해소를 요망

○專門委員 宋鍊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호적을,

○朴時俊委員 거기에 호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尹弘老委員 그러니까 이북5도민의 호적을 확인하는 문서가 아니라 호적하면 이미 호적은 편제가 되어 있거든요. 각 구별로.

○專門委員 宋鍊 이북5도민의 호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관리한다.

○尹弘老委員 호적이라 하지 말고 이북5도민의 원호적이 되어야 할 겁니다.

○朴時俊委員 원호적은 여기에 있네요. 제적 호적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북에서 넘어왔는데 어디서 넘어 온 것을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누구는 어디 어디서 살다가 누구의 자식이다 하는 것이 호적이 아니고 문서는 보관하는 곳이 이북5도청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이쪽으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많지 않으니까.

○金壽榮委員 그러면 호적 얘기가 아니고 이북5도민의 원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尹弘老委員 호적이라 하면 지금 구청에 있는 것이 호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金振權委員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5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사무소 소관해가지고 보안등 수리가 신속히 이루어져 해소 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 왜 보안등 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면 한 업체에서 성북구에 22개동을 카바를 했어요. 한 업체에서 성북구의 22개동을 카바하다 보니까 이게 보안등 수리가 늦어졌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문구를 넣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金壽榮委員 지금 기록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金振權委員님께서 어디서 확인을 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옛날에 그랬죠.

○金振權委員 95년도에도 그랬어요.

○金壽榮委員 아니에요. 95년도에는 내가 있었는데 아니에요. 동별로.

○金振權委員 나와있어요. 했다고.

○金壽榮委員 22개동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업체 선정한 것도 알고 있는데 동별로 했다고요.

○金振權委員 동별로 하는데 95년도 보수 대상업체 현황

○金壽榮委員 그런데 종암1동에 해당된 업체가 22개동을 다 했다는 말이죠?

○金振權委員 월곡동, 장위3동, 상월곡동이요.

○金壽榮委員 종암1동 한사람이 월곡 1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金振權委員 아니 월곡동, 상월곡동, 장위3동이요?

○尹晚九委員 동별로 했어요.

○金壽榮委員 아니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무슨 얘기가 하면은 1개 업자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2개, 3개 또 맡았는지는 몰라도 성북구 내의 수십개 동을 1개업체가 독점을 해서 한 것은 옛날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고 수지가 안맞으니까 서로 안할려고 하다가 구에서 강제로 맡겨서 지정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것이고 현재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1개업자가 동시에 여러 곳을 나갈 수도 없고 그 이전에는 또 업자 선정을 하기 전에는 구의 토목과 지정계에 있는 직원 2사람이 있어 30개동에 보안등 수리를 전부 전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

체될 수 밖에. 그 다음 나아진 방안이 구에서 능력있는 업체를 몇개 선정해 가지고 각동에 나누어 주었는데 주다보니까 이 업체들이 자기네 공사있을 때는 공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이 있을때 잔돈푼 벌기 위해서 유지비 벌려고 나갔기 때문에 항상 우선 순위가 늦으니까 주민들이 불평을 했다고요. 그런데 세월도 가고 이 보안등 수리비 마진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업체들도 할려고 들고 그래서 대략 알고 있는 것은 각동별로 동장들이 2개 내지 3개 복수 업체를 지정을 해서 고쳤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종암1동에 관련한 그것은 틀림없이 1개동을 했다.

○尹晚九委員 오늘 제가 보니까 10몇개업체가 전부 있더라구요. 그 명단을 봤어요. 봤는데 그 중에서 각 동장님이 나는 이 업체, 업체 하고 싶다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더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두군데만 할 수도 있고 여러군데 할 수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申宗鉉委員 문구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안등 이왕에 거기 손을 댔으니까 신속히 이루어져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委員長 徐化錫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보안등 신속히 이루어져 불편해소 했는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말이죠?

○申宗鉉委員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委員長 徐化錫 말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맞는 것 같아요.

○安傑瑤委員 말이 옳은 말인데 어려운 말로 표현되었으니 쉽게 고쳐줘요.

○委員長 徐化錫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면서 불편을 해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보안등 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하니 신속 처리요망, 되겠습니까?

(「잘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尹弘老委員 거기에 보안등 문제 말입니다.

보안등 문제는 고장이 났을 때 수리가 신속히 되지않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고장이 빈번한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재를 고장이 나지 않는 자재를 구입하는데도 검토를 하라고,

○金壽榮委員 지금 토론시간인가요? 尹弘老委員님 말씀하신 다음에 같이 얘기할까요. 중요한 것을 지적했어요.

○委員長 徐化錫 바로, 말씀하세요.

○金壽榮委員 동감이에요. 동감인 것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안등이 지금 사실은 발주를 해서 이제 보안등을 달잖아요. 고장률이 굉장히 잦고 빈도가 잦아요. 그 원인이 어딴지나, 조달청에서 어떤 이유 등등을 대는데 제 생각에는 불량품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썬스워치고 기타 다른 무엇이고 아주 고장이 잦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보안등이 들어오도록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단가가 싸면은 단가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든지, 아니면은 보안등을 맡는 업체를 예를 들어서 감시, 감독을 해서 그것이 잘 만들어지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그 회사를 보이코트하고 다른 회사에서 만들게 하든지, 그런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동장시절로 기억이 되는데 한번 토목과장한테 보복을 되게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여름철인데 보안등을 순찰하고 불꺼진데는 많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보안등이 동네에 다 보였을 거예요. 보안등 내에 날파리들이 어떻게 들어가있는지 새까맣게 들어가가지고 죽어가지고 딱지딱지 앉아있고 또 전부 등카바를 분명히 방수 처리를 하고 캡을 씌웠는데 그 안에 물이 차있어요. 물이 철렁 철렁 차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구청장님께 보안등을 수리를 하는데 캡을 떼내고 안을 닦아내고 다시 끼우든지 그런 것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조도도 낮아지고 고장률도 높아지니까. 그것을 하는데 옛날이야기니까 관계 없겠죠. 지금 같으면은 내가 큰 소리 더 치지 그런데가 어딴지나고. 한두군데 있을 거라고, 그래가면서 대조를 하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왜 거기 날파리가 들어가느냐, 잘못만들었으니까, 날파리가 들어간다, 또 왜 물이 들어갔느냐, 잘못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尹弘老委員님 말씀처럼 보안등자체가 고장이 잦은 자체가, 기계 자체가, 부속품 자체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委員長 徐化錫 그러면 거기에 같이 결들여서 삽입을 하죠.

○尹弘老委員 네.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委員長 徐化錫 그러면 문구를 가다듬죠. 보안등 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신속처리 요망과 아울러,

○金壽榮委員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한줄을 그 밑에 더 만들죠. 그것이 오히려 낫지않아요? 보안등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놔두고

○申宗鉉委員 하여튼 문맥만 잡으면 되니까요.

○尹弘老委員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구구한 설명은 우리 金壽榮委員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피하고 보안등 고장이 빈번함으로 양질의 자재이용 및 보안등 수리신속히 되지않아 신속히 처리 요망, 밑에는 그대로 하고, 앞에 보안등 고장이 빈번함으로 양질의 자재이용 및 이것만 넣으면 되지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徐化錫 양질의 자재 이용,

○尹弘老委員 이용을 수급으로 바꾸죠.

○委員長 徐化錫 양질의 자재를 사용이죠, 이용이 아니라. 사용으로 바꾸면 안돼요? 양질의 자재사용 요망, 자재를 좋은 것으로 쓰라는 말이죠. 사용이죠. 그렇죠?

○尹弘老委員 쉬운말로 하죠.

○委員長 徐化錫 그러니까 다시 한 번,

○尹弘老委員 보안등 고장이 빈번함으로 양질의 자재사용 및 그 다음은 전과 동일합니다.

○委員長 徐化錫 보안등 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신속처리 요망,

○尹弘老委員 위원장님 거기다가 넣으실려면,

○金壽榮委員 尹弘老委員이 말씀하신 대로 해 보세요.

적어보세요. 다 된 것이예요.

○尹晚丸委員 尹弘老委員은 보안등고장이 빈번함으로 양질의 자재사용 및 보안등 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처리요망 이렇게 거기다가 불이라는 말씀인데 사실 낮11시에도 보안등이 켜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등 관리, 감독도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이죠.

○金壽榮委員 그것은 대부분 보면은 순찰중에, 70, 80%가 조작 잘못이예요. 무엇이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켜 스위치가 달려가지고 밤에는 자기가 불이 들어오고 낮에는 해 뜨면 꺼지게 되어있는데 등산하시는 분들이, 부지런한 분들이 흰해서 사람보이는데 이 놈들 왜 이렇게 전력낭비하느냐고 노인네들이 끄고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고장난 것은 난 것이고 관리자는 관리가 지정이야 되어 있죠. 안되어 있나요? 관리자 지정되어 있어요.

○尹晚丸委員 그런데 낮에 10시, 11시에도 뒷 동네에 다녀보면은 켜져 있어요.

○金壽榮委員 켜져 있는 것중에 그 켜스위치가 고장난 것이 있고, 그것이 고장나서 켜스위치가 기능을 자동적으로 못해가지고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흰히 벌써 5시나 6시되면은 등산하는 분들이 또는 등산갔다 오시는 분들이 흰히 보이는데 왜 전력낭비 하느냐고 스위치를 꺼 버려요. 그리고 그냥 가신다고요. 아니면은 밤중에 어떻게 해서 꺼버린 것을 그냥 놔둘 수 있고, 아니면은 켜놓은 것이 그냥 있을 수 있고요.

○委員長 徐化錫 됐습니다. 더이상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관하여 자구수정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자구수정안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

러위원들을 올 한해동안 행정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53分 散會)

○出席委員 13人

徐 化 錫	尹 弘 老	崔 東 煥
高 允 根	尹 晚 丸	金 壽 榮
宋 夏 星	崔 桂 洛	朴 時 俊
金 振 權	安 傑 珞	俞 鎮 武
申 宗 鉉		

○出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宋 鍊
---------	-----